



루마니아 선교편지

2024. 3. 20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4:2)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바쁜 일상을 마주할수록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로 늘 깨어 있길 소망하며 이곳 루마니아 소식 전해드립니다.

♣ 루마니아 교회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길

1. 현지교회들의 말씀나눔

저희가 사역하는 브라쇼브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현지 교회들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곳 루마니아도 많은 일들 가운데 지도자와 성도들이 집중하여야 할 것은 먼저 기도하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기도에 대한 강력한 말씀의 권면과 한국교회의 기도의 분위기에 익숙한 저로서는 루마니아 현지교회들을 볼 때 늘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 지역교회들이 강단을 열어 주기에 시간이 되는데로 교회들을 방문하여 깨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계속적으로 나눌 계획입니다.

2. 펠디와라 교회와 뜨르너베니 교회

매월 마지막주일엔 전교인들이 거리나 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기에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과 기도로 무장하는 가운데 4월 첫주일은 초청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영혼구원에 집중하며 전도하는 교회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뜨르너베니 교회는 다음주 토요일에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모임에는 찬양으로 이름이 알려진 분을 초청하였습니다.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앞에 나아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3. 루마니아 목회자 수련회

작년 5월에는 루마니아 여성 사역자 수련회를 가졌는데, 이번에는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2박 3일동안 브라쇼브에서 루마니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0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말씀을 듣고 나누며 점검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길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지도자 기도모임

이곳 교회 목회자들과 10여년동안 말씀과 함께 교회의 상황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며 격려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 성탄절엔 목회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브라쇼브주의 여러 교회들의 주일학교와 어린이 전도사역을 위해 성탄선물을 나누고 또한 지속적으로 주일학교 교육에 힘쓰도록 권면하였습니다

♣ 주일학교 사역

아라치 교회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청소년 특히 여자아이들이 매주일 말씀을 암송하며 많은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처럼 청소년들도 점점 더 복음에 관심이 사라지고,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에 빠져 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 더 나은 펠디와라 지역의 청소년들이 복음에 무관심하지만 교회청소년들에게 계속적으로 제자훈련을 하고 있고, 이들과 함께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뜨르너베니 교회의 주일학교는 성탄절에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왔는데 지금은 수적으론 적어졌지만 파네전도사와 이디쇼르, 그리고 야노스집사가 열심히 가르치며 양육하고 있습니다.

♣ 신천지 이단의 활동

그동안 신천지가 이곳 브라쇼브지역의 몇 군데 교회를 타겟으로 삼고 몰래 침투를 시도하고 어떤 교회는 수개월동안 교육을 하였으나 함께 기도하는 지도자들에게 발견이 되어 해당 교회들과 협력하여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중 2개의 집시교회들의 일부성도들을 은밀히 교육하는 가운데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신천지에 빠진 이들이 교회를 나와 브라쇼브의 한 지역에서 모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신천지교리에 정통한 오비듀목사가 최전방에서 이들의 잘못을 교회에 알리고 또한 신천지에 빠진 이들과 논쟁하기도 하면서 현지교회들에 알람을 울리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도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도 긴장하면서 현지교회들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현지교회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2.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도록
3. 5월말에 있을 목회자 수련회가 성령충만한 모임이 되도록

* 총회후원계좌: 외환은행 010-04-06389-596 (GMS배만주)

생명력이 솟아나는 봄을 맞으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생명력이 넘쳐나길!

루마니아 배만주. 이명자(경진, 예진)선교사 드림